

# 대구광역시



예천군, 올해 첫 모내기...밥맛 좋은 해당쌀 예천군은 23일 개포면 경진리 일대에서 올해 풍년을 기원하는 첫모내기를 했다. 모내기 한 '해당쌀'은 농촌진흥청에서 최고 품질의 쌀로 선정한 조생종 품종으로 내병성, 내도복성이 강해 수확량이 많고 밥맛이 우수하다. 이른 모내기과 수확으로 노동력을 분산하고 태풍 같은 자연재해를 피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재배기간이 짧아 추석 전 햅쌀용으로 인기가 많은데다 예천군 농협쌀조합공동법인과 계약재배로 안정적인 판로를 확보해 농가소득에도 한몫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사진=예천군 제공)



세계최고 신비의 성 울릉니동이는 오명관광여행사와 함께 여행안내 054-791-1717

## 단체장 일정



배한철 경북도의회 의장은 24일 오후 대구 라온제나 호텔에서 열리는 대구·경북 제22대 국회의원 당선자 환영회에 참석한다.



류규하 대구구청장은 24일 오전 중구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리는 '제29회 중구의회 임시회'에 참석한다.

## 대구시의원들, 홍준표 대구시 싸잡아 '맹폭격'

### 박정희 동상 건립 비판... 대구시의회 무시한 처사

박정희 전 대통령 동상 건립을 놓고 대구시의원들이 홍준표 시장과 대구시를 싸잡아 맹비난했다.

육정미 대구시의원(사진·비례)은 23일 오전 열린 308회 임시회 시정질문에서 "조례도 통과되지 않았는데 박 전 대통령 동상 건립 예산을 편성한 것은 의회를 무시한 처사"라고 맹폭격했다.

그는 "홍 시장은 취임 이후 비상재정체제를 선언하며 수많은 사업의 예산을 삭감했고, 시 산하기관은 반도막난 예산으로 사업을 꾸려가고 있다"고 꼬집었다.

육 의원은 그런데도 "올해 첫 추가경정예산에 박 전 대통령 동상 건립비 14억 5000만 원을 편성, 조례안과 함께 제출한 것은 의회를 무시한 것"이라고 맹폭을 가했다.

이어 "기념사업의 옳고 그름을 논하기 전에 기념사업의 특성상 필수적으로 선행해야 할 공론화를 위한 여론 수렴이 결여됐다. 이런 민주적 절차 누락은 홍 시장의 독선적 행정을 보여준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기념사업은 특정인물을 기리는



데 있어 사회적 동의와 지지가 먼저다. 기념사업 추진에 앞서 갈등이 생기면 무슨 의미가 있나. 공론화를 통해 여러 의견을 들어본 후 결과를 갖고 공감과 지지를 얻는 것이 예산 편성과 조례 제정 보다 우선"이라고 했다.

이동욱 의원(사진·북구)도 거들고 나섰다.

이 의원은 "찬성과 반대를 떠나 박 전 대통령 동상 건립은 의회를 무시했다는 느낌을 많이 받는다. 동상 관련 조례는 단 3줄로 A4 용지 반장 분량이다. 최소한 주민 의견 수렴 정도는 해서 의회에 제출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따졌다.

답변에 나선 김진조 행정부시장은 "정부 예산안을 제출할 때도 예산부서 법안을 함께 제출하는 것이 상례로 매년 20건 이상씩 제출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조례안과 예산안이 같이 제출되는 경우가 상당하다"고 해명했다.

앞서 지난 16일 시는 '박정희 공원(대구 대표도서관 앞)과 '박정희 광장(동대구역 광장)에 박정희 동상을 건립하겠다고 관련 예산 14억 5000만 원을 반영한 조례안을 시의회에 제출했다. 조미경 기자

## 김승수, "대구시 행정 '오락가락 불통행정' ...

### 철곡행정타운 매각 철회해야 대구시정 불신과 실망 낚아

김승수 국민의힘 국회의원(사진·대구 북구)은 23일 "대구시가 시정 신청사 건립 사업 재원 마련을 위해 철곡행정타운 매각을 또다시 강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날 입장문에서 "대구 북구 강북-철곡 지역의 발전을 도모하고 주민들의 염원을 무시하는 일방적인 매각 결정에 대해 강력하게 반대 의견을 표한다"며

"대구시는 2022년 철곡행정타운 부지를 매각지로 선정했다가 지역 사회의 강한 반대 의견으로 철회한 바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대구시의 오락가락 불통 행정은 큰 혼란을 부추기고 있으며, 대구시정에 대한 불신과 실망을 낚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대구시는 즉각 철곡행정타운 부지 매각을 취소하고, 주민을 위한 부지 활용 방안을 마련해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지난해 11월 대구시는 시유지를 팔

아 신청사 건립비를 마련하기로 결정했다.

당시 대구시는 "신청사 예정지의 부지를 팔지 않고 다른 공유재산을 매각해 신청사 건립 재원을 마련할 것"이라며 "2025년 5월 착공해 2030년 상반기 완공하는 것이 목표"라고 했다.

매각 대상지는 북구 구암동 철곡행정타운 1만여㎡, 달서구 이곡동 성서행정타운 2만 3000여㎡, 중구 동인동 동인청사와 시의회 부지 6500여㎡, 동인청사 주차장 6000여㎡, 달서구 용산동 중소기업제품판매장 4900여㎡다. 조여은 기자

## "소나무 재선충, 고독성 농약 방제 중단하라"

### 과학적 근거 바탕으로 송화가루 속 잔류농약 성분 안전한 이유 밝혀라

#### 대구안실연

대구지역 시민단체가 소나무에 고독성 살충제 농약 주입 중단을 외치며 친환경 방제로 전환할 것을 촉구했다.

대구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은 23일 성명서를 내고 "산림청은 송화가루 속 잔류농약에 대한 심각성을 인식하고 효과도 없는 소나무재선충병 고독성 농약방제를 전

면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단체는 "산림청은 송화가루의 인체 유해성에 대한 과학적 근거도 없이 환경부의 미세먼지 이론근거로 송화가루 크기가 미세먼지보다 커 인체에 흡수될 수 없다는 해명만 한 채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아파트단지, 공원, 체육시설 등 생활 지역까지 모두 고독성 살충제 농약을 소나무에 주입하고 있어 시민 안전과 건강에 심각한 우려가 있다"며 "당국은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송화가루 속 잔류농약 성분이 안전하다는 것을 밝혀라"고

말했다.

나아가 "해의 논문 등에서도 성인과 어린이들에게 소나무 꽃가루가 피부 알레르기뿐만 아니라 코, 눈, 그리고 폐에 알레르기 반응을 유발해 알레르기성 비염과 결막염과 천식, 폐 기능 저하, 기관지 상피장벽에 해를 가져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고 주장했다.

단체는 "산림당국은 시민의 안전을 우선시한다면 주거·생활 지역 소나무에 고독성 농약 사용을 중단하고 친환경 방제로 시급히 전환하라"며 "다가오는 22대 국회는 국정조사를 통해 당국이 맹독성 물질이 함유된 방제약품만 고집하는 이유를 밝혀달라"고 요구했다. 황태용 기자

## 청도군, 아이 낳고 아이 키우기 좋은 희망 청도

### 저출생극복 기본전략 보고회 출생~ 청년 될 때까지 1인당 최대 1억9200만원 단계 지원

청도군이 저출생 극복 기본전략 보고회를 가졌다.

보고회는 지난 22일 군청 제1회의실에서 열렸는데 전 부서장 및 읍·면장 및 관계 공무원들이 참석했다.

김하수 청도군수는 "현재 저출생의 원인인 청년세대의 결혼, 출산, 양육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전 부서 및 지역 청년들과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내실 있는 정책을 추진해 나간다고 강조했다.

군은 경북도 저출생과의 전쟁 선포식 이후, 저출생 극복 TF 추진단(단장 장상열 부군수)을 구성했다.



주민 의견수렴 및 회의를 열고 지역 실정에 맞는 특수시책을 발굴하는 등 발빠르게 움직여 왔다.

보고회에서 아이 낳고 아이 키우기 좋은 희망 청도를 비전으로 제시, 청년·신혼부부 맞춤형 정주공간 140호 조성 및 매년 출생아 수 200명 이상을 목표로 설정했다.

세부적으로 청년 정주기반 구축을 위한 △주거·일자리, 경제적 부담 완화 및 임신·출산 두려움 극복을 위한 △결혼·출산·양

육, '함께돌봄'을 통한 공적돌봄 보안을 위한 △안전돌봄, 청도형 지역명문학교 육성을 위한 △고교육 4대 전략을 수립, 출산장려금 지원 인상, 지역활력타운 친환경 주거 공간 조성 등 23개 세부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한다.

청도군에서 출생, 청년이 될 때까지 1인당 최대 1억9200만원을 단계적으로 지원하는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정책의 강화 방안도 모색했다. 조여은 기자

2025 APEC 정상회의 경주 유치

## 경산 2차 아이파크 ... 계약 해제 돌입

### 754가구 중 721가구 미분양 현실적 아파트 건설 어렵다

'경산 2차 아이파크' 아파트가 부동산 경기 악화로 계약률이 저조해지자 공급 계약 해지 절차에 들어갔다.

23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경북 경산시 압량읍 일대 745가구 규모로 조성 중인 경산 2차 아이파크의 신탁사인 한국투자부동산신탁은 지난 10일부터 아파트 공급 계약자들을 대상으로 계약 해제 신청을 받고 있다.

신탁사는 계약자들에게 보낸 안내문에서 "최근 악화하는 부동산 경기

및 건설자재 원가 상승 등 사유로 아파트 건설이 현실적으로 어려워짐에 따라 계약 해제 절차를 진행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 아파트 시행사는 제이피 개발, 신탁사는 한국투자부동산신탁, 시공사는 HDC 현대산업개발이다.

이 아파트는 지난 2월 기준 745가구 중 4%인 24가구만 분양 계약을 하고 96%인 721가구는 미분양으로 남아 있다.

신탁사와 시행사 측은 현실적으로 아파트 건설이 어렵다고 판단, 공급계약서에 따라 계약을 해제하고 분양을 취소한 뒤 적절할 시기에 재분양 여부 등을 검토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신경은 기자



수성구의회, 2023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위촉

수성구의회가 지난 18일 2023회계연도 결산 검사를 수행할 결산검사위원을 위촉했다. 위촉된 결산검사위원은 지난 제260회 임시회에서 선임된 박충배 의원(대표의원)과 공인회계

사 2명, 전직 공무원 1명 등 모두 4명으로 구성됐다. 이번 결산검사는 오는 5월 7일까지 2023년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세입세출예산, 기금, 채권 등 예산집행 상황 전반에 대해 편성 목적

대로 적정하게 집행됐는지 여부 등에 대해 실시되며, 결산검사위원들은 재정운용 성과를 분석해 결산검사의견서를 제출하게 된다. 정영태 수성구장은 "수성구의 재정이 더욱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방향을 제시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조미경 기자

수성구 캐릭터 두비 이모티콘 배포·선포식 개최

일상에 녹아들어 문화가 된다 브랜드화로 문화·경제가치 창출



수성구는 지역민에 대한 감사의 일환으로 수성구민의 날을 기념해 화합의 장을 마련하고 두비의 새로운 출발을 알리고자 한다. 대구삼성라이온즈파크 시구 무대에서 많은 야구팬들과 수성구민이 참석한 가운데 캐릭터 두비 선포식을 개최한다. 기존 두비 외형에서 활동성 강화를 위해 상품화에 최적화된 형태로 누가 봐도 사람스럽고 호감이 가도록 귀여움을 강조해 리디자인됐다. '두비 = SAVE THE EARTH'라는 슬로건 아래 지구온난화 기후위기에 속 탄소중립 인식을 나누며, 전 세계적으로 도시홍보에 적극적으로 활용해 킬링콘텐츠를 도출하고 초기에 집중함으로써 캐릭터를 하나의 브랜드로 성장시켜 지역 특화 문화·경제적 가치로 창출하고자 한다. 이 과정에서 두비 외에 탄생스토리의 주축이 되는 두개비석이 도리라는 서브 캐릭터도 탄생했고 두비를 누구나의 친구로, 도리를 두비 곁을 지키는 반려돌로 성장시키고 두비의 성격은 사람들이 공감하고 위로를 받을 수 있는 보통의 우리들과 같다. 때로는 멍하니 폭 퍼져 있기도 하고 천방지축같이 장난치기도 좋아하며 실수투성이라고 가끔 어리숙해 보이기도 하지만 환경, 자연, 생명, 사랑을 헤치는 걸 보면 그것들을 지키기

위해 무서운 보안관으로 변해버리는 반전 매력을 가지고 있다. 두비를 캐릭터를 넘어 좋은 사람을 보면 사귀고 싶듯, 사람들에게 힘을 주는 캐릭터로 만들기 위한 장기적 운영 방향은 크게 캐릭터 관리, 캐릭터 연극운영, 캐릭터 홍보, 환경교육, 굿즈 공예품 제작, 판매운영, 라이선스 관리, 환경교육 등 8가지 분야로 나뉘어 있다. 이중 국내 최초로 공예와 캐릭터를 연결시켜 들안예술마을과 지역일지리를 통한 공예 판매 및 교육, 캐릭터 굿즈 생산 등 수요자들의 생산자로서의 경제활동을 참여시키고 유도 시켜 판매로 이어지는 선순환 문화경제 생태계 구축을 통해 캐릭터와 결부시켜 노동에 대한 의미를 찾도록 한다. 공격적인 홍보·마케팅을 통한 캐릭터 런칭 초기 인지도 제고를 위해 지난 19일부터 5월 2일까지 용산 아이파크몰에서 '미스터두넛핑 × 두비'가 함께 팝업행사를 운영중에 있다. 또한 캐릭터 두비 선포를 기념해 오는 24일 수요일 오후 2시, 수성구청 채널 추가 대상으로 기후위기 지구를 지키는 두비 무료 배포 이벤트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홍보 활동에 나선다고 밝혔다.

'지구를 지키는 두비'라는 주제로 이모티콘 16종 제작했으며, 일상생활에서 활용도가 높은 감정표현으로 이뤄졌다. MZ세대의 라이프 스타일을 반영한 이모티콘은 오는 24일 오후 2시부터 수성구청 공식 카카오톡 채널을 신규추가하면 선착순으로 지급되며, 해당 이모티콘은 수성구청 홈페이지에서도 다운로드 가능하다. 오후 6시 30분에는 대구삼성라이온즈파크 시구 무대에서 야구팬들과 수성구민이 참석한 가운데 두비의 선포식을 개최해 화합의 장을 마련해 두비의 시타, 삼성라이온즈 캐릭터 블레오와 합동응원 및 응원식 라운딩 및 기념사진 촬영, 지구살리기 올바른 분리배출 인식 확산을 위한 종이 및 플라스틱 분리수거 캠페인 진행을 위해 두비 환경 캠페인 부스 운영 등 환경을 실천하는 첫걸음부터 시작할 계획이다. 이 외에도 수성구는 속도보다 방향을 중요하게 판단해 스토리텔링을 하면서 대중들이 캐릭터의 세계관에 몰입할 수 있도록 등장인물들과 사건 등을 재배치하면서 짜임새를 더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인형탈을 활용한 퍼포먼스를 기획해 마케팅을 시도할 예정이다. 조미경 기자



달성군, 태아·산모 위한 특별한 보파리와 음악 선물

신생아 양육 키트·음악회 등 마련

달성문화도시센터는 달성문화도시의 비전인 호혜로움을 실천하고자 달성군민과 미래 달성군민들을 포용하고 확대하는 '달성보파리'와 '산모 힐링 음악회'사업을 펼친다고 밝혔다. '달성보파리' 사업은 들락날락하는 누구에게나 호혜로운 문화도시답게 문화적 선물을 주고 받으며 달성만의 혜택을 군민과 나누는 의미로 달성군민인 산모와 머잖아 군민이 될 태아를 위해 문화적인 선물을 제공한다. 보파리는 총 3가지로 △임산부 및 산모 보파리 △태어난신생아 보파리 △전입한세대 보파리가 있으며, 이중 해당하는 유형에 신청 가능하고 신청에 따라 선착순으로 지급된다. 3가지 중 '임산

부 및 산모 보파리'와 '태어난신생아 보파리'는 중복 신청이 불가하나, 앞서 언급한 두 개의 보파리 중 하나와 달성군 전입한 세대 보파리는 중복 신청이 가능하다. 임산부 및 산모 보파리는 애착인형, 태어난신생아 보파리는 친환경 이유식 그릇, 전입한세대 보파리는 친환경 생활을 할 수 있는 키트로 구성되어 있으며, 여기에 임신, 출생을 또 전입을 축하하는 자그마한 연서를 담아 제공된다. 달성의 선물은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문화도시센터는 '달성보파리'와 더불어 '산모 힐링 음악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산모 힐링 음악회는 4월 24일부터 11월까지 한 달에 한 번씩 유가읍 소재 행복관 병원 또는 다사읍 소재 로즈맘산후조리원에서 열리는 일명 찾아가는 음악회다. 이는 음악

을 통해 임산부와 산모들이 임신과 출산 과정에 받는 스트레스를 조금이나마 덜어주기 위해 진행된다. '산모 힐링 음악회'의 공연팀은 사회적 기업인 한국 유일 오케스트라 전문 '디오 오케스트라(박은지 대표)팀과 지역에서 활동하는 앙상블 더 카포(정선경 대표)팀으로 구성되어 있다. '디오 오케스트라'는 4월 24일부터 11월까지 매 짝수달에 행복한 병원에서 공연하고, '앙상블 더 카포'는 매 홀수달 로즈맘산후조리원을 찾아 공연할 예정이다. 최재훈 달성군수는 "이 사업이 미약하나마 지역의 출산율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됐으면 한다"며 "앞으로도 달성문화재단 문화도시만의 특징을 살려 호혜로운 문화도시 달성이가 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조여은 기자

대구시, 제21회 국제그린에너지엑스포 개막

세계 에너지산업 트렌드 한눈에... 25개국 330개사 신기술 각축전

대구시는 국제그린에너지엑스포가 24일부터 26일까지 사흘간 엑스코에서 개최된다고 23일 밝혔다. 대구시와 경북도가 주최하고 한국신재생에너지협회, 한국태양광산업협회, 엑스코 등이 주관해 25개국 330개사(1100부스)가 참가한다. 대구시가 2004년 '제1회 세계솔라시티 총회' 개최를 계기로 중점적으로 육성해 온 국제그린에너지엑스포는 국내 최대, 세계 10대 신재생에너지 전문전시회로 성장했다. 올해로 21주년을 맞이하는 그린에너지엑스포는 '솔라시티(Solar City) 대구' 실현의 견인차 역할을 수행하며, 글로벌 신재생에너지 기업은 물론이고 신재생에너지 솔루션 수요기업도 대거 참여하는 국제전시회로 당당히 자리매김했다. 국제그린에너지엑스포는 해외에 나가지 않고도 태양광 및 신재생에너지의 글로벌 트렌드를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 에너지 관련 업계 종사

자들이 가장 많이 찾는 국내 최대 전시회로 관심을 높이고 있다. 올해도 세계 Top10 셀·모듈·인버터 기업들이 총출동해, 글로벌 에너지 시장을 선도할 기술의 각축전을 펼칠 예정이다. 생산량 기준 세계 10대 태양전지 및 패널 리딩 기업인 한화큐셀, JA솔라, 징코솔라, 린지솔라, 라이젠 에너지, 캐나다인 솔라, 트리나 솔라, 티더블 유 솔라 등 태양광 셀·모듈 분야 글로벌 Top10 기업 중 8개사가 참가를 확정했다. 태양광 인버터 분야에서도 선그로우, 화웨이, 그로와트, 솔리스, 시능, 구위, 소파 솔라 등 글로벌 TOP10 중 7개사가 참가한다. 또한 현대에너지솔루션, 한솔테크닉스, 신성이앤지, 아이솔라에너지, 알피오, 그랜드션, 에스디엔, 오사아이피워, 다스테크, 에스지에너지, 에스케이솔라에너지, 이노일렉트릭, 가온E&C, 한남전기통신공사 등 국내 유망기업도 혁신 기술과 제품을 선보일 예정이다. 이와 함께 해외 판로개척에 어려움을 겪은 국내 기업의 수출 진척을 위해, 수출상담회를 온·오프라인 하이브리드 행사로 진행할 예정이며, 중

국, 미국, 캐나다, 독일, 베트남, 인도 등 23개국 83개사의 바이어가 참여함으로써 수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던 기업들의 갈등을 해소시켜 줄 것으로 기대된다. 올해는 최근 에너지 안보와 친환경 산업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는 가운데 13개국에서 태양광·수소 전문가 및 기업 관계자가 참석해 글로벌 정책과 시장동향을 논의하는 의미 있는 장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장수 대구시 경제부시장은 "21주년을 맞는 이번 행사는 글로벌 기업 간 다양한 네트워킹 기회를 제공하고, 신재생에너지 트렌드 교류 역할을 넘어 국제사회 에너지 문제의 솔루션을 제안하는 전문전시회"라며, "이번 엑스포를 통해 참가 기업과 간 협력적 네트워크 구축과 정보공유를 통해 관련 산업의 시장 확대와 새로운 활로를 모색하는 소중한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국제그린에너지엑스포는 누리집(www.greenenergyexpo.co.kr)을 통해 상세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으며, 사전등록 시 무료로 관람할 수 있다. 조여은 기자

KBS 전국노래자랑 군위군에서 열린다

8년만에 끼와 재능 뽐낼 기회



군위군은 5월 14일 군위읍 군위생활체육공원에서 'KBS 전국노래자랑 군위군편'을 개최한다. 예심은 5월 12일 군위읍 삼곡유사교육문화회관에서 오후 1시부터 진행되며, 1·2차 예심을 통과한 약 15개 팀이 본선에 진출해 숨겨진 끼와 재능을 마음껏 뽐낼 예정이다. 예심 참가는 4월 30일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군위군청 기획감사실 홍보팀을 방문하거나 이메일로 신청하면되며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 KBS 전국노래자랑 군위군편은 MC 남희석과 초대 가수 설연도, 박시진, 영기, 오유진, 김태욱이 출연해 군민들에게 다채로운 즐거움과 볼거리를 선물할 것으로 기대된다. 군위군 관계자는 "노래를 사랑하는 군위군민들이 자신의 재능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며 많은 참여를 당부했다. 또한 "이번 전국노래자랑을 통해 군민 모두가 함께하는 화합의 장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박재성 기자

대구 청년 마음의 병,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마음건강 돌봄 서비스 강화

대구시는 일상에서 지속적인 불안, 우울감을 느끼고 있지만 비용 부담, 접근성 문제 등으로 상담을 망설이는 대구 청년들의 아프고 지친 마음을 치유하기 위해 청년 마음건강 돌봄 서비스를 강화한다.

대구시는 지역사회 내 정신건강의 어려움을 겪는 청년을 조기 발굴하고 적절한 조기개입 및 치료를 통해 정신질환을 예방하고자 대구광역시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대구청년마음건강센터를 별도로 개소해 2023년 10월 31일부터 운영하고 있다. 대구청년마음건강센터는 △대면·비대면 정신건강 상담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마

음건강 주치의' 상담 △마음을 잇는 따뜻한 카페: 마잇따' 협력카페 상담 △치료비 지원 △개별 사례관리 △그룹 및 여가활동 프로그램 등 청년 정신건강 증진을 위해 예방부터 치료까지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한다. 대구청년마음건강센터는 정신건강의 어려움을 겪는 19세~34세 청년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으며, 이용 문의는 전화(053-565-2030) 또는 인터넷 누리집(www.youthdgmhc.or.kr)을 통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조여은 기자





### 예천고향사랑기부제 출향인 기부 이어져

재대구예천군민회가 지난 21일 800만원의 고향 사랑기부금을 예천군에 전달했다. 윤선식 회장의 300만원 기부를 시작으로 △정하웅 수석부회장 100만원 △이세철 수석부회장 100만원 △황해욱

이사 200만원 △사무국 일동 100만원을 기부했다. 은풍중학교 제10회 동창회 원동희 회장과 29명이 720만원의 기부금을 전달, 예천사랑을 실천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자신이 거주하는 주

소지의 다른 지역에 기부하면 세액공제와 돌려 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이며, 예천군은 작년 에 모금액 경북 1위를 달성했다. 김학동 예천군수는 "전달해주시는 기부금은 예 천군의 발전을 위해 소중하게 사용하겠다"고 말 했다.

# 산림 재해 안전한 문경 건설

## 지구의 날 맞아 백두대간 사랑 나무심기 캠페인

문경시가 백두대간 사랑 나무심기 계몽운동을 했다.

행사는 지난 22일 지구의 날을 기념, 문경읍 관음리 하늘재 일대에서 열렸는데 산림청, 경상북도, 임업후계자 협회, 대학생과 관음리 마을 주민들이 참석했다.

신한국 문경시장은 "체계적으로 뜻깊은 행사를 문경에서 개최하게 돼 기쁘다. 환경부 출신으로서 환경의 소중함을 잘 알고 있고, 아름답고 건강한 산림을 가꾸고 지키는데 선도적인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시민들도 산불, 산사태 등 각종 산림 재해로부터 안전하고 문경을 만들기 위해 적극 협조해 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날 백두대간 하늘재에 종합안내판을 설치, 제막식을 가졌다.

경북대, 충북대학교 대학생들이 기후변화로 인해 멸종위기에 처한 구상나무를 심었다.

2부행사로 대학생들을 상대로 문경시 문화해설사들이 하늘재의 유래를 설명하고 충북 미륵사까지 트레킹을 하여 뜨거운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이번 행사를 계기로 지구를 생각하고 지구를 지켜야 한다는 인식이 널리 퍼져 아름다운 대한민국을 만들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김학홍 경북도 행정부지사는 "지구의 날 기념식에 함께하게 되어 영광스럽고 산림청과 함께 경북도 관련부서에서도 기후변화대응, 재해예방 대책 등 다양한 정책이 만들어지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고 했다.

하늘재는 우리나라 최초로 개통된 고갯길로 높이가 525m이다.

경북도 문경시 문경읍 관음리와 충청북도 충주시 수안보면 미륵리의 경계에 있다.

삼국시대(156년) 때 신라의 아달라왕이 북진

을 위해 개척했다.

이전에는 계림령(鷄立嶺), 대원령, 지름재 등으로 불렸으나 요즘에는 거의 모든 지도에 하늘재라 표기하고 있다.

지구의 날은 지구 환경오염 문제의 심각성을 알리기 위해서 자연보호자들이 제정한 지구 환경보호의 날로, 매년 4월 22일이다.

미국 캘리포니아 산타 바바라에서 있었던 기름유출사고(69.1.28.)를 계기로 1970년 4월 22일 시작하였으며 올해 54주년을 맞이했다.

환경오염 문제의 심각성을 일깨우기 위해 제정한 날로, 유엔이 정한 세계 환경의 날(6월 5일)과는 달리 순수 민간운동에서 출발했다.

우리나라는 2009년부터 매년 '지구의 날'을 전후한 일주일을 기후변화주간으로 정해 기후변화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저탄소생활 실천의 필요성을 알리기 위한 소동행사 등을 전국 각지에서 진행하고 있다. 김동수 기자

## 예천군의회, 군민 힘 되는 예산 심사...

###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및 부의안건 처리



최병욱 예천군의회 의장이 23일 제 270회 임시회에서 개최를 일리는 의 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예천군 의회 제공)

예천군의회 제270회 임시회가 23일 개최, 29일까지 7일간의 의사일정에 들어갔다.

제1차 본회의에서 2024년도 제1차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 예산안 심사를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강영구 의원, 간사 강경탁 의원)를 구성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시책개발계획 수립 용

역비,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사업 등 본 예산보다 300억 원이 증액된 7566억 원이 제출됐다. 의회는 24~27일까지 3일간 심사·의결한다.

최병욱 예천군의회 의장은 개회사에서 "경기 불황에 따른 세수감소로 나라살림이 많이 어려워진 가운데 군민에게 힘이 되는 예산 편성이 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들의 세심한 검토를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회로포 일대에서 열리고 있는 봄꽃 축제와 5월 개최될 예정인 축제, 현대양궁월드컵대회가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예천군의회에서 응원하겠다"고 덧붙였다.

제1차 본회의에서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예천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천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천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4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예천군 택시 기본차량 조정에 관한 조례안 △예천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천군 특별교통수단 운영 민간위탁(재계약) 동인안 등 7건의 안건을 심의 의결 했다. 안병욱 기자



## 구미시, 광·사이판 13개 호텔 농식품 공급

### 농식품기업협의체, 해외바이어 MOU 체결 및 수출선적식 개최

구미시는 23일 낭만연구소에서 농식품기업협의체(G-FOOD) 운영위원 10명이 참석한 가운데 수출선적식을 가졌다.

선적식에 앞서 농식품기업협의체는 해외바이어 3개 사(사이크로, GTW, 이든글로브)를 초청해 광·사이판에 월 10억 원 상당의 안정적 수출을 위한 MOU를 체결했다.

구미시 농식품 기업협의체 4개 사의 제품(마카롱, 떡볶이, 빵, 쭈꾸미)이 광·사이판 내 13개 호텔에 입점, 선적식에서는 4000만 원 상당의 제품을 먼저 수출한다.

제품은 현지 저온저장고 부족으로 매주 항공물류(인천공항)를 통해 수출된다. 앞으로 대구경북통합 신공항이 개항하면 물류 이동 시간과 비용을 감축할 수 있어 신규업체 수출참여와 기존업체의 수출물량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장호 구미시장은 "어려운 환경에서도 구미시 농식품산업 발전을 위해 힘쓰는 농식품기업협의

체에 진심으로 감사하다. 이번 선적식이 수출 판로 개척의 발판이 돼 구미 푸드가 전 세계로 나아갈 수 있게 물꼬를 터주길 바란다"고 했다.

구미시 농식품기업협의체(G-FOOD)는 지난 1월 총 63개의 식품기업체가 참여해 결성됐다. 협의체는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공동브랜드(G-FOOD)를 설립했다.

앞으로 내수·해외 시장에서 구미업체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공동브랜드 학교 급식 입점, 공동물류센터 구축, 해외 사절단 공동 참여 등을 추진한다. 이은진 기자

## 2024 제4회 왕산 도심문화축제 막내려

### 지역 상권 활성화 계기 마련 축제 다양한 먹·볼거리 제공



사진은 상주패션거리 준공식 및 제4회 왕산도심문화축제 모습

'2024 제4회 왕산 도심문화축제'가 성황리에 막내렸다.

행사는 20일 서문사거리 중앙로와 패션거리 일대에서 열렸는데 도시재생 상주패션거리 사업준공을 기념, 지역주민 간의 소통을 위해 서문사거리 중앙로와 패션거리 일대에서 열렸다.

행사는 상주시 도시재생위원회, 왕산상인회, 왕산지구도시재생위원회가 주관하고 상주시와

상주시의회의 후원으로 다채롭게 열렸다.

'도시재생 상주패션거리 준공식'에는 정상원 부시장, 남영숙 도의원, 이경옥 상주시의회 부의장을 비롯한 기관 및 사회단체장들이 참석, 자리를 빛냈다.

축제에서 먹거리 장터와 지역 예술가 및 초청가수의 공연 등 다양한 먹·볼거리를 제공했다.

40여 개의 전시 및 체험 부스가 운영, 도심 지역의 상가 상인들이 부스 운영에 참여, 행사를 더욱 뜻깊게 만들었다.

심영보 도시재생위원장은 "곳은 날씨 속에서 찾아주시는 시민들과 함께 행사를 원활히 진행하고, 문제없이 잘 마칠 수 있도록 도와준 상주시에 깊은 감사의 말을 전한다. 5년 만에 개최되는 이번 행사가 생업으로 지친 주민들에게 치유와 화합의 장이 될 수 있기를 염원하는 마음으로 준비했다"고 말했다.

정상원 상주부시장은 "이번 행사가 사고 없이 준비한 만큼 원활히 진행된 것에 뿌듯하게 생각하며 이 행사를 토대로, 지역 상권 활성화를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경호 기자

## 칠곡군, 'K-FOOD' 대표 떡볶이 독일 시장 공략

### 김재욱, 지역기업 해외판로 개척 적극 지원 포부 밝혀



김재욱 군수가 이끄는 칠곡군 해외 무역사절단은 지난 22일 독일 하노버 인터시티 호텔에서 세계 5개국 바이어를 대상으로 수출 상담회를 열었다. (사진=칠곡군 제공)

칠곡군이 K-FOOD를 대표하는 떡볶이를 앞세워 독일 시장 공략에 나섰다.

김재욱 군수가 이끄는 칠곡군 해외 무역사절

단은 지난 22일 독일 하노버 인터시티 호텔에서 세계 5개국 바이어를 대상으로 수출 상담회를 열었다.

상담회는 한류 바람을 타고 관심이 높아진 ㈜샘초롱의 떡볶이와 ㈜농부플러스의 생들기름은 물론 ㈜글러브의 산업용 장갑과 ㈜신우피앤씨의 성인용 기저귀가 선보였다.

자동차 관련 분야에서 차별화된 경쟁력을 갖춘 △㈜모아인터내셔널 △(주)제이앤에스 △(주)에스엠씨티 △대일기업 등도 자사 주력 제품 홍보에 나섰다.

상담회장에는 독일은 물론 항공편을 이용한 영국 바이어와 5시간 운전하고 국경을 넘어 합류한 체코 바이어 등 5개국에서 참가했다.

독일 하노버에서 유일하게 한국 제품을 유통하고 판매하는 마트에서도 참가해 떡볶이와 채

식주의자에게 오메가3를 공급할 수 있는 생들기름에 많은 관심을 보였다.

김재욱 군수는 영어로 "칠곡군에서 맛과 품질을 보장합니다. 안심하시고 거래하세요 됩니다"라고 말하며 일일 영업사원으로 활약했다.

명함을 교환하고 기념 촬영을 하는 등 대기업에 비해 중소기업이 부족할 수 있는 신뢰감 형성에 집중했다.

권선호 칠곡군의원도 자신의 직책을 소개하며 기업 신뢰도를 높이는 등 관내 기업인의 세일즈 활동을 지원했다.

차운일 ㈜샘초롱 대표는 "5개 업체와 상담을 진행했고 조만간 체코 바이어와 실계약이 체결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상담회를 통해 해외 바이어의 수요와 시장 동향을 파악하는 좋은 계기가 된 것 같다"고 전했다. 조미경 기자

축하고 부푼 기대와 응원 속에 첫 단을 올리는 자리가 됐다.

과정은 한방·건강바이오 및 웰니스 교육, 노래교실, 문화 탐방 등 한의학적 건강 예방과 다양한 평생교육 프로그램으로 구성, 4~11월까지 8개월간 25회차(총 75시간)로 운영한다.

실버세대를 위한 맞춤형 평생학습 강사진 한 방건강행복대학은 지난해 부터 경산시 평생학습 보조사업으로 선정됐다. 신경은 기자



경주시, 상반기 불법어업 특별 예방지도·단속

경주시가 봄철 산란기를 맞아 5월 한달간 육상 단속을 포함한 해수면 불법어업 특별단속에 나선다. 단속 효과를 높이기 위해 경북도 어업지도선,

동해어업관리단, 수협, 해양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주요 항·포구 및 불법어업 민원발생 지역을 중심으로 지도·단속한다. 합동 단속은 경주시 해양북항행정선 근무대원

호를 활용 △금어기·금지제장 미준수 및 암컷대 개 불법포획 △도계 월선조업 등 조업구역 위반 △불법어구적재·사용행위 등이다. 무허가 어업 행위 등에 대한 불법행위를 집중 지도·단속 등 강도 높은 단속을 병행 허가취소·정지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한다.

칠불암 5감 힐링체험 국가유산 대표 브랜드 10선 선정

경주시, 전국 최초 민간 주도 탄소중립 실천 선도도시 선포



지난해 진행된 칠불암 5감 힐링체험 현장

경주의 '칠불암 5감 힐링체험'이 문화재청 주관 2025년 국가유산 활용 대표 브랜드 10선에 최종 선정됐다.

대표 브랜드 사업은 우수사업 또는 명예의 전당에 선정된 이력이 있는 사업 중 대표 사업을 선정, 국내 대표 브랜드로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으로 올해 처음 추진한다.

앞서 칠불암 5감 힐링체험은 2019년부터 문화재청 주관 우리 고장 국가유산 활용사업에서 3년 연속 우수 사업에 이름을 올렸다.

경주시는 이번 대표 브랜드 선정에 따라 2025~2027년까지 3년 동안 브랜드 육성을 위한 사업 예산 지원과 홍보·운영에 대해 문화재청의 집중 지원을 받게 된다.

문화재청 심사에서 칠불암 5감 힐링체험은 경주 남산의 유일한 국보 '칠불암 마애불상군'을

주제로 5감과 문화유산·숲·예술·명상 등 융·복합 프로그램의 성장 가능성을 인정받았다.

신체·정신·사회적 건강을 추구하는 웰니스 프로그램을 지향, 문화유산의 현대적 효용성을 높인 차별화된 프로그램으로 높은 평가를 받았다.

기후위기 대응과 관련해 환경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프로그램에 포함, ESG 준수와 함께 환경 캠페인으로 문화유산 활용사업의 미래 지향적 가치를 높인 점은 큰 호평을 얻었다.

칠불암 5감 힐링체험은 올해 11월까지 매월 두 번째 금·토요일 개최, 사전예약제다.

행사 문의는 주관단체인 (사)경주문화유산활용연구원(054-773-2988)으로 연락하면 된다.

프로그램은 등산이 어려운 유아나 어르신, 장애인을 위한 토크쇼와 연회를 포함한 마애체험 행사도 준비돼 있어 계층과 연령에 제한 없이 누구나 칠불암 5감 힐링체험을 즐길 수 있다.

올해는 경북교육청과 신라공고가 전국 최초로 발굴한 '해외 우수 유학생'이 이미 칠불암 5감 힐링체험에 우선선정됐다.

동국대학교 WISE 캠퍼스 동아리 동산(동국산악부)에서도 3개월에 걸쳐 힐링체험 참여를 예약한 상태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이번 대표 브랜드 선정은 문화유산과 힐링이 어우러진 문화콘텐츠의 발전 가능성을 제대로 보여준 사례다. 앞으로도 지역 문화유산을 활용한 가치와 아름다움을 알리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주낙영 경주시장이 지난해 5월 5일 어린이날 실내체육관에서 개최된 어린이날 큰잔치 행사에 참석해 아이들을 격려하고 있다.

'꿈·자유·행복이 있는 우리들의 세상!'

경주시, 어린이날 큰 잔치 30곳 부스 행사·동심 풍성

경주시가 제102회 어린이날을 맞아 5월 5일 황성공원 시민운동장에서 어린이날 큰 잔치를 펼친다.

'꿈·자유·행복이 있는 우리들의 세상!'이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행사는 어린이들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참여를 위해 체험형 프로그램으로 준비됐다.

기념식 행사는 PDS크루 경주청소년 댄스팀의 식전공연을 시작으로 아동권리현장·노동, 모

범어린이 시상, 경주YMCA소년소녀합창단 공연 등의 순으로 진행된다.

체험행사는 11시부터 15시까지 빛나는 가족 사진관, 솜사탕 만들기, 에너지체험 키트 및 탄소중립 팸플리 만들기, 동경이 체험 등 20곳 부스에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게 풍성한 놀거리가 준비돼 있다.

전시 및 캠페인 이벤트는 체험행사와 같은 시간대에 경찰·소방차량 및 장비 전시, 아동학대 예방캠페인, 드림스타트 사업홍보, 진로교육 체험센터 등 10곳 부스에 다채롭게 선보인다.

올해는 시민운동장 내 A텐트, 빈백, 돛자리 등을 비치해 부모와 아이들을 위한 쉼터를 운

영한다.

시는 원활한 행사진행을 안전보험 가입, 종합 생활실 운영, 행사장 내 응급 의료소 설치와 구급차 운영, 자원봉사자 100여명 등을 배치, 당일 안전에 만전을 기한다.

단 어린이날 오전 시 실내체육관에서 행사를 한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어린이날을 맞이해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다양한 행사와 프로그램을 준비했다"라며 "모든 어린이들이 건강하게 성장해 꿈과 희망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아동친화도시 경주가 될 수 있도록 세심하게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경주시, 귀농·귀촌 차별화된 사업 발굴

귀농귀촌 청년창업 박람회 우수 지자체상 수상 영예



경주시가 지난 19~21일까지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Y-FARM EXPO 2024 스마트 귀농귀촌 청년창업 박람회'에서 귀농·귀촌 우수 지자체상을 수상했다.

시는 신농업혁신타운 내 예비농업인들의 교육·정착을 위해 조성되는 '귀농·귀촌 웰컴팜교육지원센터'와 청년농업인들에게 스마트팜 운

영 경험을 소개했다.

지역의 다양한 귀농 정책과 교육을 홍보했으며, 경주 농업인이 직접 생산·가공한 농산품을 비롯해 농·축산물 브랜드인 이사금 쌀과 천년한우 육포 등을 적극 안내했다.

지역 자체 사업인 귀농인 이자 지원사업과 영농정착 지원 사업은 물론 장농활성화 역량강화 교육은 청년 농업인으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안정적인 영농창업 지원을 위해 현재 운영 중인 '경영실습임대농장' 등 다른 지역과 차별화된 농업 정책은 높게 평가됐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이번 귀농·귀촌 우수 지자체상 수상을 계기로 도시민 유치를 위한 홍보 활동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며 "경주로 귀농·귀촌을 희망하는 도시민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경주시민의 차별화된 사업을 발굴하는데 더욱 매진하겠다"고 전했다.

윤용찬 기자/사진 경주시제공

'민간환경감시기구' 규정 손질 원전 지역 주민 불안감 해소

경주시가 장기간 공석이었던 민간환경감시기구 센터장을 채용하기 위해 설치 및 운영 조례를 큰 폭으로 손질한다.

23일 경주시에 따르면 '경주시 원전발전·방폐장 민간환경감시기구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가

정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으로 지나치게 까다로웠던 자격 요건 탓에 2021년 1월부터 공석이었던 감시기구 선임 센터장 채용에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시는 원전과 방폐장 환경으로부터 시민 보호라는 감시기구 본연의 기능과 업무 강화를 꾀하고자 함이 목적이다.

개정안에는 감시센터 직원 채용 시 현행 산업통상자원부 '원전·방사성폐기물처리시설 환경

감시기구 운영지침' 대신, 지역 실정에 맞게끔 자격요건을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현행 센터장 자격 요건은 △방사능/선 측정 △환경방사능 분석 등 극히 제한된 경력만을 인정하고 있어 적임자 선발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원자력 산업체 △원자력 교육기관 △원자력 연구기관 △환경감시센터 등의 원자력분야 경력자도 지원할 수 있게끔 채용 요건이 일부 완화된다.

Advertisement for the 2025 APEC Summit in Gyeongju. It features the Gyeongju logo, the text '2025년 APEC 정상회의', and a large calligraphic slogan '경주 위치를 희망합니다' (We hope for Gyeongju's location). The background shows a traditional Korean palace at night.

### 영덕 청송 영양 청도 울릉 울진

청송군 진보면 배연정 씨  
'제67회 보화상' 대상 수상



청송군 진보면에 사는 배연정 씨가 재단법인 보화원이 주최하는 제67회 보화상 시상식에서 최고상인 보화상 대상 수상자로 선정됐다.

보화상 시상식은 재단법인 보화원에서 매년 대구 및 경북 지역의 효행과 열행, 선행을 실천한 이웃을 발굴해 시상하는 권위 있는 행사다.

배씨는 30여년을 간호사로 근무하며 이웃 노인의 건강을 살피는 일에 앞장서 왔다.

고령의 시부모님을 모시기 위해 고향으로 돌아와 효행을 실천하는 등 보화상의 의미에 걸맞은 삶을 살아왔다.

윤경희 청송군수는 "대상 수상을 축하드리며 효행을 몸소 실천하는 분이 청송군에서 나와 자랑스럽다"고 밝혔다.

제67회 보화상 시상식은 오는 6월 14일 보화원회관 승당홀에서 열린다.



강구면 지역단체, 환경정화 활동

영덕군 강구면새마을부녀회원과 강구여성회소방대는 지난 22일 성운대학교 스마트평생교육대학 강성을 교수와 학생들과 함께 강구면 해파랑공원 일대에서 환경정화 활동을 펼쳤다.

새마을부녀회와 의용소방대 20여명, 성운대학교 30여명이 참여했다.

서진연 강구면 새마을부녀회장은 "평소 환경정화 활동에 관심이 많던 단체들이 연합해서 환경정화 활동을 진행한 것에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고, 이러한 문화가 꾸준히 이어지길 바란다"고 전했다.

황정기 강구면장은 "더 살기 좋은 강구면을 위해 여러 지역단체가 적극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협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청도군, 계약원가심사 교육

청도군은 지난 22일 공사·용역·물품구매 관련 사업담당자들을 대상으로 계약원가심사 직무 교육을 했다.

계약원가심사 제도는 지자체가 발주하는 사업에 대해 설계 단계에서 원가계산 적정 여부 등을 심사해 예산을 절감하는 제도다.

교육은 계약원가심사대상 변경 사항, 상시 지적사례, 산업안전보건관리비·환경보전비 정산 등 내용으로 구성됐다.

# 별천지 영양에 울려 퍼진 고향사랑 기부 훈훈

영양농협-북영덕농협  
고향사랑기부금 기부

영양에 고향사랑나눔기부 행렬이 잇따르고 있다. 영양농협과 북영덕농협직원이 지역 상생 발전을 도모, 고향사랑기부금 550만 원을 상호기부했다.

기부는 두 지역 간의 상호 발전 방안을 찾던 중 고향사랑기부금을 통해 각 지자체의 발전 및 협력을 꾀하기 위해 추진됐다.

영양농협 직원 55명과 북영덕농협 직원 55명이 한마음으로 뜻을 모아 서로의 지자체에 10만 원씩 각 550만 원을 기부했다.

양봉철 영양농협 조합장은 "서로의 지역 발전을 응원하는 마음으로 상호기부금을 추진하게 됐다. 양 기관의 상호기부가 앞으로도 지속될 수 있도록 고향사랑기부제를 적극적으로 응원하겠다"라고 말했다.

오도창 영양군수는 "한마음으로 상호기부에 참여하신 영양-북영덕 농협 임직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앞으로도 두 지역 간의 상호 발전을 위해 지속적인 교류와 협력이 강화되길 바라며, 기부금은 영양군을 위해 소중히 사용하겠다"라고 말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현재 주소지를 제외한 지자체에 연간 500만 원 한도 내에 기부하면 세액 공제 혜택과 기부액의 30% 범위 내에서 담례품을 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기부금은 사회취약계층 지원, 청소년 육성 및 보호, 지역주민의 문화·예술·보건 증진, 지역공동체 활성화 등 영양군 지역발전에 사용된다.

권윤동 기자



## 울릉군, 개인하수처리시설 양성화 사업 추진

청도 지역특화여성  
취업역량강화 앞장

미등록 개인하수처리시설

체계적 관리 민원발생 예방

울릉군은 새달 1~7월 31일까지 3개월간 미신고된 개인하수처리시설(오수처리시설, 정화조) 양성화 사업을 추진한다.

하수도법에 따르면 오수를 배출하는 건물·시설 등을 설치하는 자는 오수를 처리하기 위해 단독 또는 공동으로 개인하수처리시설(오수처리시설, 정화조)을 신고 후 설치해야 한다.

하지만 관련 법이 만들어진 1991년 이전에 설치된 정화조나 재래식 화장실의 경우 설치자가 임의로 수세식 화장실로 변경, 제대로 신고하지 않은 경우가 있다.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악취 등의 민원 발생, 수질오염 등 미신고에 따른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는 문제가 발생해 양성화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

사업대상은 적법한 건축물에 부속된 미신고 시설이다.

이번 양성화 조치는 접수기간 내 신고 시 일체의

불이익이 면제된다. 다만, 무허가 건축물 및 분류식 하수처리구역 내 개인하수처리시설(오수처리시설, 정화조)은 양성화 대상에서 제외된다.

설치 기준이 미흡한 개인하수처리시설(오수처리시설, 정화조)의 경우 시설 보완 후 양성화가 가능하다.

남한권 울릉군수는 "이번 양성화 조치로 미등록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체계적 관리로 민원 발생을 사전 예방하고 수질오염을 개선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윤환 기자

## 울진군, 수소경제 활성화 전력투구

연료전지 중심 도심형분산 전원

전기 자동차 '충전기' 보급 확산

울진군이 수소경제 활성화에 행정력을 모은다.

군은 지난 22일 울진군청에서 ㈜하이셀텍(대표이사 김길훈), 영남에너지서비스(주)(대표이사 박원병)와 '울진군 융복합 수소연료전지 사업 유치 및 보급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업무협약으로 전기차 충전 복합 에너지 슈퍼스테이션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전기차 복합 연료전지 스테이션 사업이란 도심 내 국·공유지·주유소 등의 유휴 터에 연료전지와 전기차 충전기를 설치한다.

연료전지에서 생산되는 전기를 전기차 충전기뿐 아니라 인근 배전망에도 공급한다.

산소와 수소의 전기 화학적 반응을 통해 전력을 생산하는 연료전지는 저탄소 발전원으로서 주목을 받고 있다.

군은 앞으로 보유한 공공 터를 활용, 연료전지를 중심으로 도심형 분산 전원 및 전기 자동차 충전기 보급 확산에 나선다.

이번 사업으로 분산 전원 보급율을 높이고, 송전 손실 및 송전망 건설에 대한 사회적 비용을 경감시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현재 국내 전력 시장은 장거리 송전에 따른 전력 손실뿐만 아니라 송전망 건설 입지 문제에 따른 사회적 문제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향후 폭발적인 증가가 예상되는 전기차 충전 인프라 구축에 선제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전기차 충전 인프라의 적기 공급이 중요하다.

군은 에너지 슈퍼스테이션을 빠르게 확장, 경북 관내에 분산형 전원의 우수 모델로 뻗어 나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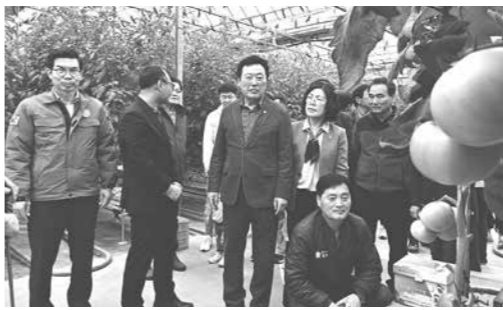
손병복 울진군수는 "사업 협력으로 분산 전원의 보급율을 높이고 수소경제 활성화라는 정부 정책에 적극 기여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정수 기자

## 영덕군, 재배·경영·유통 넘어 과학 농업 건설

영덕형 스마트팜 종합평가회

작년 2개분야 5억7천만 투입



김광열 영덕군수(왼쪽 2번째)와 영덕군의원들이 스마트팜 시범사업 대상 농장을 방문해 농작물을 관찰하고 있다. <사진=영덕군청공>

영덕농업기술센터는 지난 22일 지난해 진행한 청년 스마트팜 스타트업 지원 및 시설원에 광합성 증대 기술 시범사업 종합평가회를 가졌다.

이날 김광열 영덕군수와 관내 농업인 단체 등 80여 명이 참석, 종합평가, 사업별 문제점, 개선 방

청도군은 지난 22일 여성회관 종합교육장에서 지역특화여성취업교육으로 노인미취업자 1급 자격과정 개강식을 가졌다.

교육은 65세 이상 고령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노인인력에 대한 전문 인력의 필요성에 의해 개설됐다. 지난 22일부터 6월 13일까지 매주 월, 목요일 총 17회에 걸쳐 운영된다.

노인미취업자 교육 과정은 2022년과 2023년 2년에 걸쳐 2급 과정을 운영, 총 38명의 수료생을 배출, 큰 인기를 끌었다.

안토의, 생산물 시식 등이 진행됐다.

영덕군농업기술센터는 지난해 영덕형 스마트팜 시범사업에 2개 분야 5억 7000만 원을 들여스관내 스마트팜 최초 도입을 통한 첨단농업 확산 및 기반 조성 ▲청년 농업인의 자립 기반 확보 및 농촌 정착 지원 ▲탄산가스 공급을 통한 광합성 증가로 농산물 생산량 증대 ▲영덕형 스마트팜 하우스 개발을 통한 방·난방비 절감 등의 성과를 거뒀다.

군은 이번 종합평가회를 바탕으로 농촌 지도사업의 문제점과 보완 사항을 도출, 향후 사업의 방향성을 찾고, 실증과제 추진 결과 우수한 사업은 점차 확대 보급한다.

김광열 영덕군수는 "이번 종합평가회는 관내 농업인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지도 사업이 무엇인지 평가하는 좋은 기회가 됐다"라고 말했다.

군은 앞으로 재배 단계뿐만 아니라 경영과 유통까지 과학적인 농업이 접목될 수 있도록 농업인과 관계부서가 소통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한다.

조여은 기자

## '엄마와 하룻밤 힐링여행' 소중한 여행

청송군치매안심센터

치매환자가족과 소통

청송군치매안심센터가 마련한 '2024 엄마와 하룻밤' 힐링 여행이 큰 인기다. 이 행사는 치매 어르

신을 돌보느라 심신이 지친 보호자들에게 활기를 불어넣고 치매 어르신과 보호자 간의 유대감 형성, 몸과 마음의 건강 회복을 위해 마련됐다.

지난 19, 20일 1박 2일 일정으로 영주국립삼천치유원에서 치매 어르신과 보호자 분들을 모시고 '2024 엄마와 하룻밤' 힐링 여행을 다녀왔다.



프로그램은 힐링 숲속산책, 통나무명상, 치유장

비 체험, 가족사진 촬영으로 진행, 가족 간 서로 이해하고 공감하는 시간을 가졌다.

프로그램에 참가한 치매환자 보호자는 "따로 시간을 내어 어머니와 같이 여행을 가기에는 어려움이 있었는데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뜻깊은 시간을 보낼 수 있어 감사하다"고 소감을 전했다.

윤경희 청송군수는 "앞으로도 활기차고 건강하게 돌봄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원하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윤병문 기자

### 영천 영주 봉화 의성 고령 성주



최기문 영천시장은 24일 오전 화남면 대천2리 마을회관에서 열리는 경북행복마을 58호·영천행복마을 32호 스타빌리지 사업 기념식에 참석한다.



### 의성군, 과수 생육 양호... 긴급냉해방지 지원 적극 대응

의성군은 지난해 냉해 피해를 당해 생산량이 급감한 과수 농사가 올해는 현재까지 비교적 순조로운 것으로 나타났다.

군은 최근 5년간 발생한 농업재해 중 과수피해율이 90% 이상이며, 특히 저온피해의 경우 과수피해율이 98% 이상으로 타 작물에 취약한 상태이며, 올해 겨울철 고온에 따른 저온피해가 우려돼 선제적인 대응을 위해 이상저온 대비 긴급대책회의를 지난 3월 15일 개최했다.

또한 긴급과수냉해방지비를 예비비로 긴급하게 세우 2,957농가에 2억4천만원을 지원하여 저온경감제 살포에 완료하였다.

이러한 적극적인 대응으로 22일 현재 냉해 없이 생육 상태가 양호하였으며, 앞으로 수확기까지 가뭄, 탄저병 등 생육시기별 위험요소를 선제적으로 관리할 것을 당부했다.



### 성산면, 농로 화단 조성 '깨끗한 농촌만들기'

고령군 성산면은 지난 8일부터 22일까지 '깨끗한 농촌만들기'의 일환으로 농로 화단을 조성했다.

어곡리 부근 농로에 오랫동안 방치돼 오던 영농폐비닐, 폐부직포, 일반쓰레기 등을 치우는 등 환경사업소(소장 이상직), 군자연보호협의회(회장 노동중), 면직원, 노인일자리사업 등 30여 명이 참여했다.

폐비닐·폐부직포 분리배출, 일반쓰레기 배출, 성토 및 꽃잔디 식재로 '깨끗한 농촌만들기' 농로 화단을 조성했으며 물주기, 비료주기, 제조관리로 꽃잔디가 잘 활착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 의성군, 장애인의 날 제44회 기념행사 개최

의성군은 지난 19일 제44회 장애인의 날을 맞이해 장애인복지센터 앞 잔디마당에서 기념행사를 가졌다.

식전 공연으로 장애인회원과 사회복지봉사자들로 구성된 육구술합창단의 공연이 진행되어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편견을 없애고 장애인 상호 간 친목을 다지는 계기를 마련했다.

# 성주군, 모든 복지정보 '성주복지플랫폼' 으로

## 성주복지플랫폼 복지 통합시스템 다양한 서비스로 주민복지 기여

성주군이 복지와 관련된 모든 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성주복지플랫폼' 통합시스템을 구축하여 금년 5월부터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간다.

성주복지플랫폼은 다양하고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양의 복지정보를 주민들이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만든 복지통합시스템으로 디지털기기 사용에 익숙하지 않은 노령층까지 손쉽게 접근하여 내가 받을 수 있는 복지정보를 제공하는 데 목적이 있다.

### ■ 성주복지플랫폼의 가장 큰 매력

성주복지플랫폼의 가장 큰 특징은 "도움요청"과 "나눔신청" 기능으로 갑작스런 위기상황에 부딪힌 가정에 긴급생계·긴급의료·긴급돌봄 등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한다.

또한 물적 지원을 비롯하여 봉사까지 나눔의 뜻이 있는 개인이나 단체가 신청할 경우 최소한의 기간내 특성에 맞게 연계해 준다.

그동안 공공 및 민간기관의 지원을 개인이 일일이 찾아 신청하는 수동적인 방식에서 벗어나 성주복지플랫폼에 도움과 나눔을 신청하면 좀 더 투명한 방식으로 많은 수고로움을 덜어줄 것으로 예상되며 별도의 로그인 없이도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다.

### ■ 다양한 서비스로 주민복지 향상 기여

성주복지플랫폼에서는 복지정보 제공 뿐만 아니라, 자활 상담과 관내 모든 군민교육 신청이 가



능하다. 또 전국 최초로 복지자가진단 기능을 탑재하여 나에게 맞는 복지제도를 알려주는데 예를 들어 소득과 재산을 입력하면 기초수급 및 기초연금 대상 여부를 알 수 있어 사용자들의 흥미도 유발한다.

코로나19 등 각종 감염병에 취약한 복지시설에 일반인은 물론 입소자 가족까지 직접 가보기 힘든 상황을 해결하고자 복지시설 내부를 VR로 촬영하여 개인 휴대폰에서 직접 검색할 수 있는 기능도 추가하였으며, 복지시설 내부를 공개하여 사용자들의 선택에 도움을 주고 시설의 홍보에도 도움을 줄 예정이다.

읍면복지소식은 성주군의 10경을 테마로 정해 읍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활동하는 모습을 민

관이 함께 공유하는 소통의 공간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 ■ 미래 지향적 기능 "AI 복지시스템" 구축

성주복지플랫폼의 수준을 한차원 더 끌어올릴 "청렴 챗봇", "AI 군민교육 신청" 등은 AI 기반 음성 인식과 자연어 처리 기술을 통합한 챗 GPT를 활용하여 사용자가 간편하게 일상적인 대화형식으로 복지 정보를 문의하고 필요한 서비스를 바로바로 안내받을 수 있게 된다.

플랫폼에 빈번하게 접속된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군민이 원하는 복지 서비스에 대한 선호도를 분석하고 우리군에 맞는 복지정책을 수립하는데 기초적인 자료를 제공할 예정이다.

뿐만 아니라 모바일 애플리케이션과 웹 플랫폼

에 스마트 알림 기능을 도입하여 이용자의 복지 서비스 변경·신규 프로그램·복지이벤트 등 최신 정보를 실시간으로 받아볼 수 있게 할 계획이다.

### ■ 성주군민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

성주군은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펼치고 있는 다양한 복지제도가 하나도 사장되지 않고 골고루 혜택이 지원되도록 성주복지플랫폼을 통해 체계적이고 투명한 복지정책을 실현할 것이다.

관련 유관기관과 협약을 통해 성주복지플랫폼을 더 풍성하게 만들고 주민들에게 교육과 홍보를 통해 관심을 제고하여 성주복지플랫폼이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 선비의 낭만 가득, 2024영주 한국선비문화축제

## 신바람 난 선비의 화려한 외출 5월 4일부터 6일까지 3일 개최



로 참여해 풍성한 볼거리를 제공하고 도심 전체에 축제 분위기를 전한다.

서천둔치(시민운동장) 축제장에서는 고구려를 시작으로 민동어미 화전놀이 공연, 고지 퍼포먼스, 개막식과 축하공연 등 모든 연령대가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꾸며진다. 특히 영주지역에서는 처음으로 드론쇼를 선보이며 색다른 재미를 선사할 예정이다.

특히 선비를 더 가깝게 느끼고 체험할 수 있도록 선비의 숲(홍보관), 선비의 치유(한방 건강체험), 외국인 관광객 대상 선비문화 글로벌 캠퍼스가 준비되어 있다. 이와 함께 선비&아트 공예품 공모전

을 통해 제작된 다양한 장신구와 공예품도 함께 전시해 시선을 사로잡을 계획이다.

어린이들을 위해 마련된 선비 어린이 놀이터에는 미니게임, 전통놀이, 포토타입 등 범용 퍼포먼스를 통해 축제의 흥을 느낄 수 있도록 구성했다.

축제 둘째 날이자 어린이날인 5일에는 경북도립국악단의 공연과 핑크퐁, 아기 상어의 댄스파티, 어린이 태권도와 합창단 공연 등 어린이날을 기념한 특별공연이 진행되며 주무대에서는 이창호 바둑기사의 지도 대국이 개최될 예정이다.

축제의 또 다른 무대인 소수서원과 선비촌 일원에서는 선비촌 일상재현(마당극), 문종의 후손 초청 프로그램인 '선비의 발자취를 따라서', 다도세움과 명가명주(전통주)체험, 밤을 걷는 선비(소수서원 야행) 등 장소의 역사, 문화적인 강점을 최대한 활용한 프로그램이 펼쳐진다.

또, 선비세상에서는 '2024 어린이 선비축제'를 개최해 어린이 선비 장원급제, 어린이 상상극장, 열기구, 캠프 체험 등 온 가족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체험형 콘텐츠가 준비된다.

축제 기간뿐만 아니라 영주의 5월은 선비문화 체험으로 가득하다. 축제에 앞서 5월 2일과 3일 양일간 문화예술회관에서 뮤지컬 정도전이 공연된다.

## 의성군, 새마을지도자 한마음 수련대회 개최

의성군은 의성군새마을회가 지난 22일 안계면 위천생태공원에서 새마을운동 제창 54주년 새마을의 날을 기념해 새마을지도자 한마음 수련대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의성군새마을회 주관으로 개최된 이날 행사는 지역사회의 발전과 주민 화합을 위해 헌신 봉사하고 있는 새마을회 회원들의 노고를 위로하고 사기를 진작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에는 김주수 의성군수를 비롯해 국회의원, 도 및 군의원, 기관·단체장, 새마을회 회원 등 1,000여명이 참석했다.

행사는 새마을의 날 기념식, 명랑운동회 및 노래자랑으로 진행되었으며 회원들의 큰 호응을 불러일으켰고, 지역사회 봉사활동에 대한 사기를 충전하는 계기가 됐다.

박희용 회장은 "이번 수련대회를 통해 회원들 간 단합과 결속을 다지고, 새마을운동도 우리 지역에 맞게 변화,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주수 의성군수는 "지역사회를 위해 헌신 봉사하고 있는 새마을지도자들에게 늘 감사하다."며 "한마음 수련대회를 통해 쌓인 피로를 해소하고, 활력을 재충전해 앞으로 더 지역사회 곳곳에서 솔선수범 해주기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 영천시, 그린환경센터 등산로 힐링코스로 시민 각광

영천시 그린환경센터 주변 등산로는 시내와 근접한 거리에 위치하고 있어, 시민들이 언제든지 쉽게 이용하며 힐링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많은 각광을 받고 있다.

또한 야간조명이 600미터 구간 설치되어 저녁 장인들이 퇴근 후, 저녁 시간대에도 안전하게 등산로를 이용할 수 있으며, 올해 2월에는 조경수에 인테리어 조명을 장식해 영천강변공원에서 멋진 야경도 감상할 수 있는 명소로 자리매김했다.

특히 그린환경센터 등산로는 하루 평균 300여명(주말 550여명), 월평균 1만여 명이 이용하고 있으며, 꽃이 화사하게 피어나고 만물이 소생하는 봄부터는 더 많은 시민들이 찾을 것으로 예상된다.

자원순환과에서는 최근 봄맞이 새단장으로 꽃잔디 식재, 먼지 털이기 추가 설치, 보행 매트 정비, 무인 인원 계수기 설치 등 다방면으로 시민들의 건강과 행복을 위해 보다 나은 등산로 관리에 최선을 노력을 다하고 있다.

그간 시는 그린환경센터 매립장을 기피 시설이 미지에서 탈피해 시민들과 더 친숙하고 관광객이 즐겨 찾는 명소로 탈바꿈하기 위해 데크로드 설치, 산속 힐링 버스 운영, 주차장 추가 조성 등 해마다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 왔다.

최기문 영천시장은 "시민들에게 쾌적하고 아름다운 공간을 제공하고 깨끗한 클린 영천 이미지 제고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성주군, 귀농·귀촌 청년창업 박람회에서 홍보 박차

### 2024 Y-Farm Exco 스마트 귀농귀촌 청년창업 박람회 우수 홍보관상 수상

성주군농업기술센터는 지난 19일부터 21일까지 3일간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24년 Y-Farm Exco 스마트 귀농귀촌 청년창업 박람회'에 참가해 귀농·귀촌 홍보 활동을 펼쳤다.

이번 행사에서는 청년창업농 및 귀농·귀촌인들에게 성주군 귀농·귀촌 정책, 관련 정보 및 교육 홍보와 함께 책자와 리플릿, 기념품 등을 제공하였다.

성주군으로 귀농·귀촌을 희망하거나 관심이 있는 도시민을 대상으로 1:1 맞춤형 상담을 진행하

였다. 김경민 성주군농인연합회장도 참석하여 영농현장에서 발생하는 생생한 경험담도 말하면서 도시민과 농업인이 서로 소통하는 기회를 가졌다. 특히 청년층과 도시민들은 눈길을 사로잡는 황금빛 성주참외와 성주참외 캐릭터 참별이, 참외를 이용한 성주꿀참외빵, 참외초콜릿 등 참외 가공품에도 많은 관심을 보였다.

또한 시식과 함께 사진도 찍으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냈으며, 마지막날에는 "우수 홍보관상"을 수상하는 쾌거도 이뤘다.

성주군은 귀농·귀촌과 관련하여 농업기술센터 귀농경영팀에서 원스톱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방문뿐만 아니라 전화상담도 가능하다.



# 2024 대구광역시일보

# 女人天下 챔피언십



**5월 20일 (월)** 2부 순차플레이

- 팀 : 20팀 선착순 마감(입금자순)
- 참가비 : 27만원
- 장 소 : 경주신라컨트리클럽

주최 (주)대구광역시일보 주관 경주보성마트

**3월 21일 ~ 4월 30일**(입금자우선)

- ※입금 후 환불 불가 (선수교체 가능)
- ▣ 참가자격 : 아마추어
- ▣ 참가비 : 27만원 (그린피, 카트, 저녁만찬 포함)
- ▣ 참가비 입금계좌 (예금주 : 김영숙) 대구은행 508-11-147821-4

- ▣ 참가문의 · 대구광역시일보 사업국 담당 010-4473-4473

참가자 전원 기념품 증정  
행운상 푸짐

### 특별 행운상

- 임플란트 진료권
- 한의원 상품권
- 성형외과 시술권
- 호반오리 무료시식권
- 펜션 숙박할인권
- 골프장 그린피할인권

### 메달리스트

백화점 상품권 50만원  
성형외과 진료권 20만원

### 신페리오

- 우승 150만원 (백화점상품권)
- 준우승 100만원 (백화점상품권)
- 3위 70만원 (백화점상품권)
- 롱기스트 30만원 (백화점상품권)
- 니어리스트 30만원 (백화점상품권)

### 만찬장소

경주신라컨트리클럽  
2층 대식당